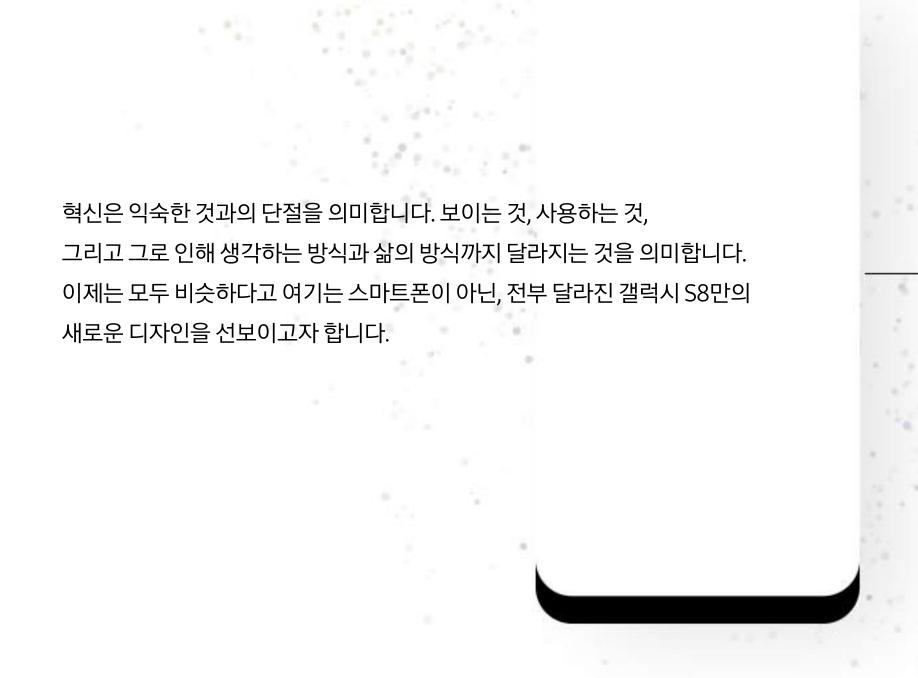
# ONE ASAWHOLE

Galaxy S8 Design Story



### Oneness

하나의 디자인이 만드는 새로운 가치

갤럭시 S8은 완전한 하나에 가깝습니다.
기계처럼 느껴지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디바이스 본질의
정수만을 남기며 사용자와 하나 되는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놀라운 기술은 혁신적인 디바이스의 실루엣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사용자에게는 확장된 경험을 제공합니다.





교육은 얼마나 손에 맞는 곡선을 지녔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바이스의 앞과 뒤, 각 중앙에서 완벽한 대칭으로 이어지는 미세한 곡률은 양 끝에서 만나며 사실상 베젤을 거의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곡률은 라운드 된 엣지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사용자의 손안에서 부드럽게 잡합니다.

사용자를 새로운 경험으로 이끕니다.



#### 물흐르듯 이어지는 글래스소재

글로시한 광택을 지닌 글래스 소재는 꺼져 있을 때조차 표면에 세상을 비추며 자연스럽게 일상과 어울립니다. 하나로 흐르는 듯한 소재감과 안쪽으로 숨김 처리한 후면부 카메라 렌즈는 물 흐르듯 일체화된 갤럭시 S8 디자인을 완성합니다.



개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빛나는 조화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복잡하고 다층적인 연결이 일어나고, 다양한 영역에서 경계가 사라지면서 특정 지역, 성별, 연령에 치우치지 않으려는 욕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갤럭시 S8은 취향의 호불호보다는 균형감 있고 자연스러운, 누구에게나 어울리는 조화로운 형상을 가진 디자인으로 완성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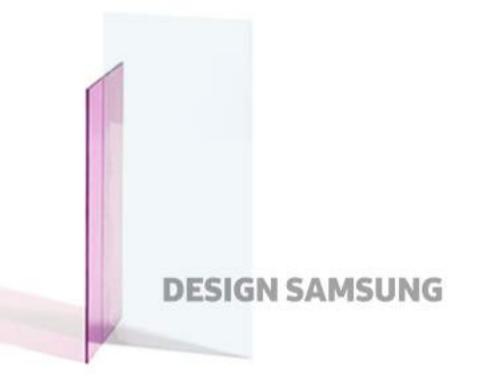
깊이가 느껴지는 미드나잇 블랙(Midnight Black)은 마치 단단한 오닉스를 보는 듯한 느낌을 주며 일체감 있는 디자인이 강조됩니다. 따뜻한 느낌이 흐르는 아틱 실버(Arctic Silver), 골드 컬러의 깊이감을 더한 메이플 골드(Maple Gold)는 기존의 색을 계승하면서 뉴트럴 컬러의 자연스러움을 끌어냅니다. 차분하면서도 신비로움이 느껴지는 오키드 그레이(Orchid Gray)와 젊은 감각을 재해석한 저채도의 코랄 블루(Coral Blue)는 트랜디하면서도 균형감을 제시하는 컬러입니다.

### 라이프 스타일에 어우러지는 액세서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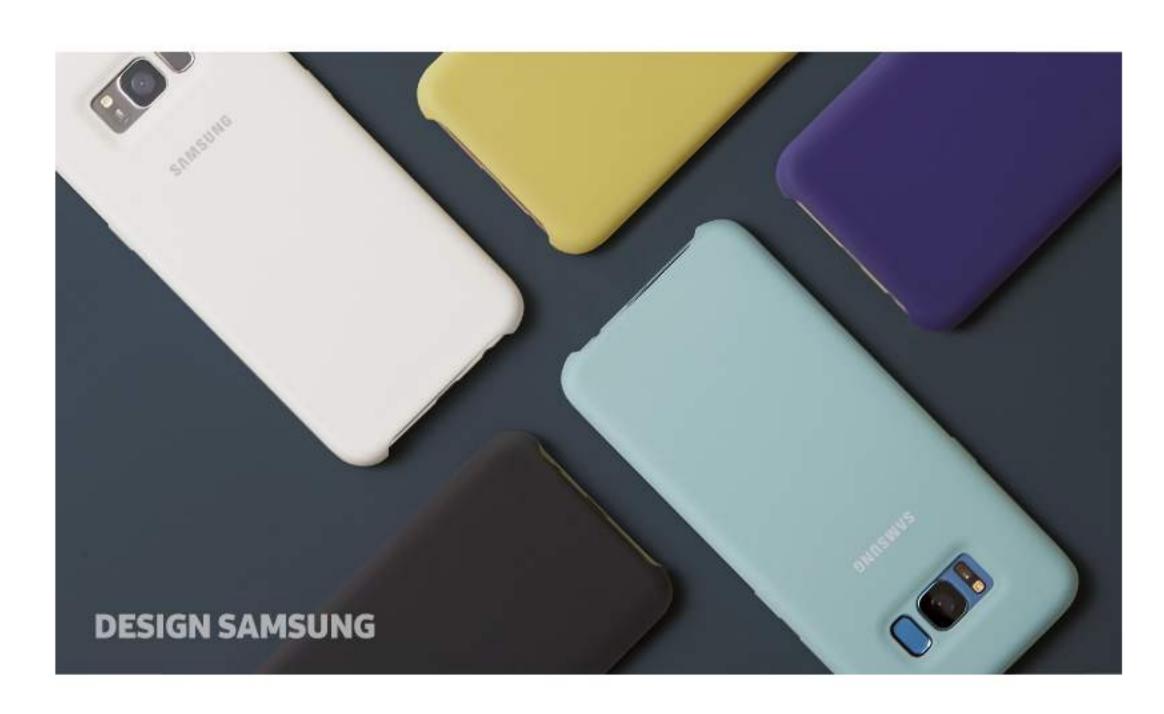


디바이스만큼이나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것은 액세서리입니다. 부드럽지만 시간이 흘러도 긁힘이나 해짐, 눌리는 자국이 남지 않는 알칸타라 소재를 채용한 케이스는 손안에 자연스럽게 잡히면서 고급스러움을 드러냅니다.





반투명 클리어 커버는 갤럭시 S8의 제품 컬러와 믹스 매치 되며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아름다움을 만들어 냅니다.



부담 없는 소재의 실리콘 커버 역시 밀레니얼 세대를 대표하는 밝은 컬러감을 자랑합니다. 유연하고 자유로운 액세서리 디자인으로 갤럭시 S8은 공간과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일상의 오브제가 됩니다.

## Continuity



밖에서 안으로 이어지는 디자인 랭귀지

하드웨어적인 외형 디자인과 그 안에서 펼쳐지는 소프트웨어적인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서로 그 결을 달리할 때, 제품은 완전한 일체감을 잃게 됩니다. 제품이 모든 측면에서 하나라는 느낌을 줄 때, 비로소 디자인은 사용자에게 안정감 있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갤럭시 S8의 혁신적인 외관 디자인은 내부에서 외부로, 다시 외부에서 내부로 이어지며 일관된 디자인 랭귀지를 선보입니다.



#### 첫인상부터 연결되는 비주얼 경험

사용자가 처음 접하는 Always On Display에서 Lock,
그리고 Home Screen까지 은하수 효과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처음 인식되는 아름다운 인상은 사용자가 갤럭시 S8을 사용하는 내내
부드럽게 그 주변을 유영합니다. CMF 별로 다른 무드의 월페이퍼와
각도에 따라 반응하는 은하수 효과는 외관에서 느껴지는 무한한
확장성과 연속성을 디스플레이 안에서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One Continuous Experience

아이콘부터 검색바, 날씨 위젯까지 모두 새롭게 디자인된 갤럭시 S8의 Home Screen은 사용자에게 깔끔하고 특별한 인상을 줍니다. 아이콘은 'Light & Line'이라는 컨셉 하에 라인 일부를 잘라 마치 일상 공간에 생기는 빛과 그림자처럼 보이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제품과 UX를 연결하는 Soft Key로 바뀐 홈버튼부터 아이콘까지 일관된 디자인 랭귀지로 One Continuous Experience를 느낄 수 있습니다. Home Screen에서 Apps로 진입할 때 상하 Swipe만으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화면의 편집 경험을 통일시키고 다중 선택 모드를 제공하여 기존 Home Screen 보다 직관적이고 쉬운 사용성을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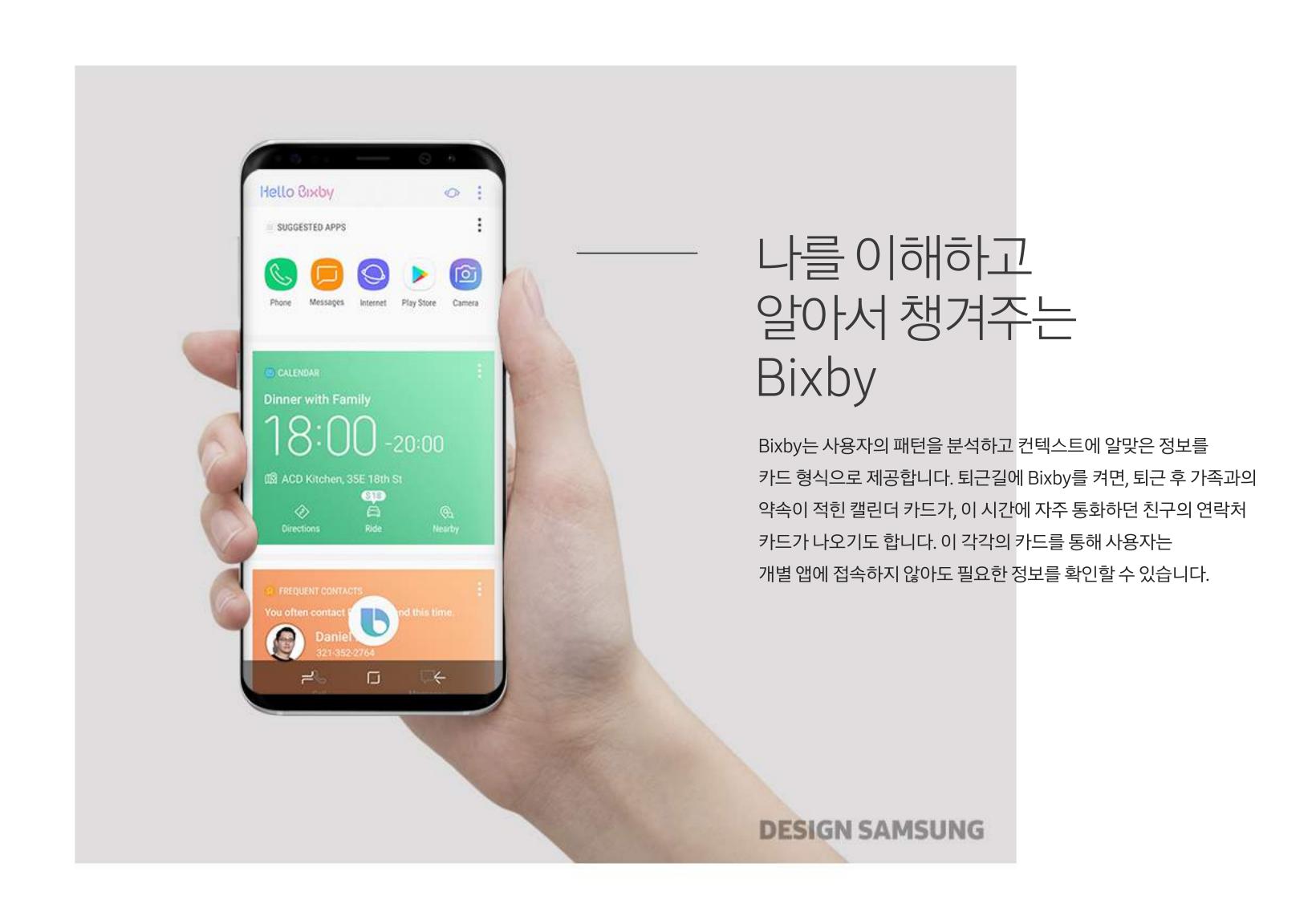


### Newness

사용자를 이해하는 새로운 인터페이스의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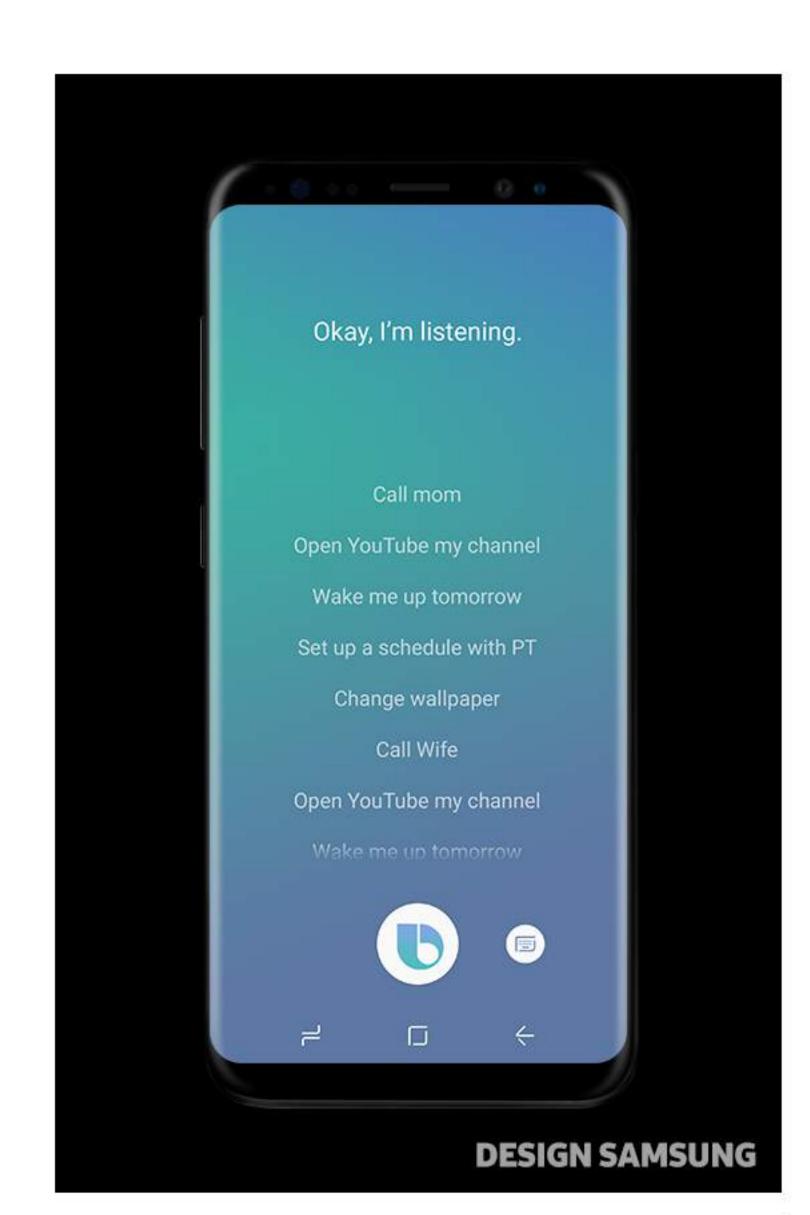
지난 10년간 터치 위주의 스마트폰 사용 방식에서 진화하여 터치와 음성을 모두 지원하는 차세대 인터페이스 Bixby를 선보입니다. 사용자는 환경에 따라 원하는 방식으로 끊김 없이 인터랙션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품 외관에 새롭게 추가된 좌측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버튼을 길게 누른 상태로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사용자의 리듬에 맞춰 원하는 일을 끝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용자와 함께 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Bixby도 끊임없이 진화하며 우리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친구가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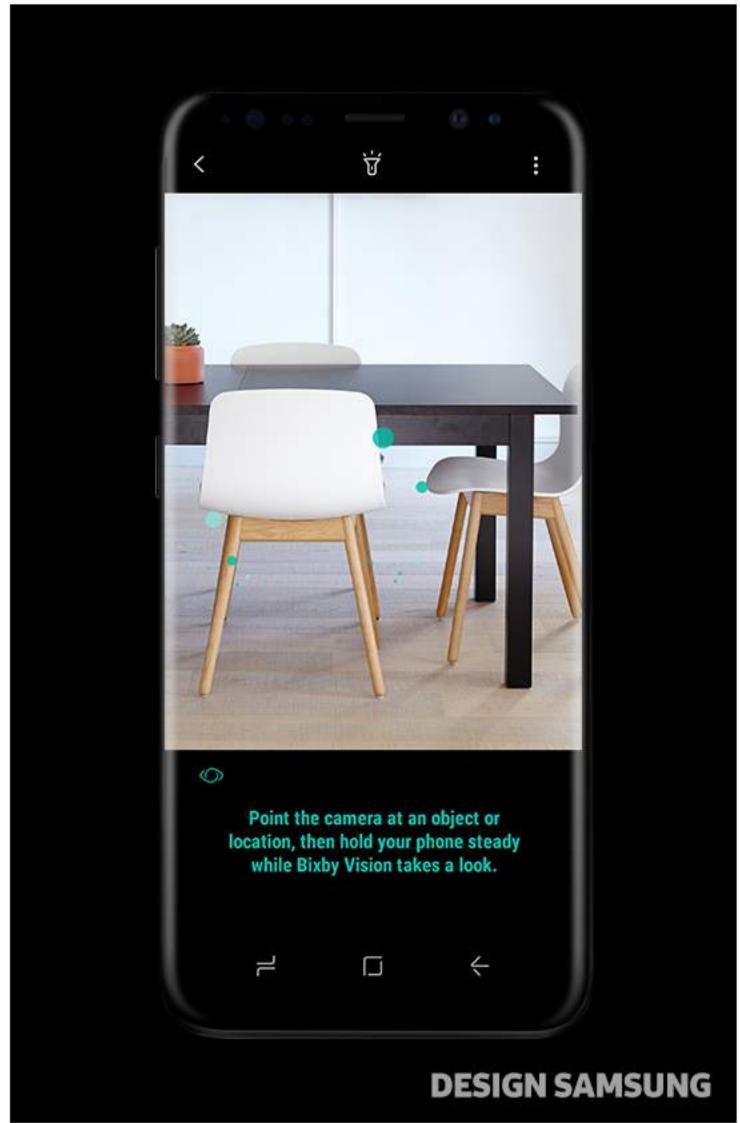
### 완벽하게 말하지 않아도 충분한

모든 기능을 반드시 터치로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Bixby는
사용자가 터치만으로 사용하던 기능을 음성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사용자가 이야기한 내용을 기준으로 의미를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은 이후 실행 옵션을 다시 제시하는
Partial Landing 기술을 통해 이전보다 자연스러운 음성 인터랙션이
가능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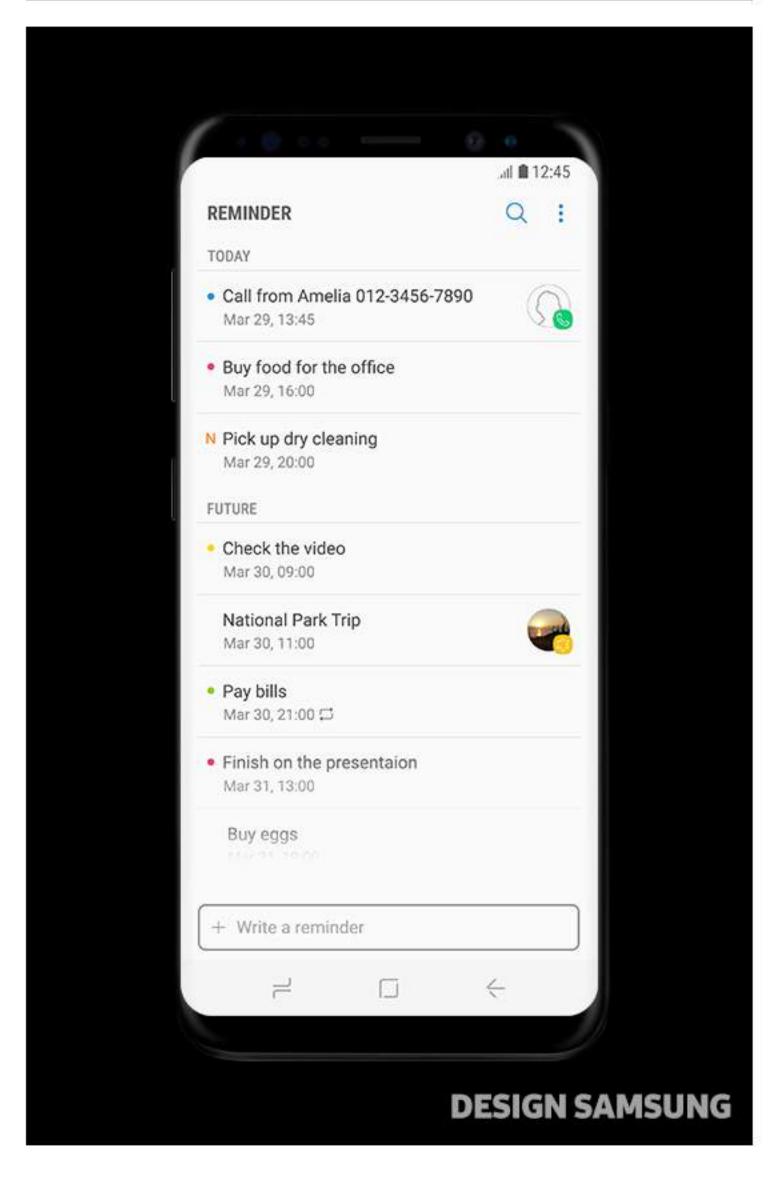
### 보이는 것, 그 이상을 보다

Bixby는 사용자가 보는 이미지를 인식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용자가 카메라를 켜거나 갤러리에서 이미지를 볼 때 Bixby Vision 아이콘을 누르면 화면 속 제품, 장소 등을 검색하여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은 물론, 텍스트를 인지하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 필요한 것을 알려주는 Bixby

Bixby는 사용자가 기억해야 할 내용을 등록하면
나중에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저녁에 세탁물을 찾아야 하는 것이
생각났을 때, 지금 보는 영상을 집에 가서 다시 보고 싶을 때,
Bixby를 통해 Reminder에 저장해두면 필요한 순간 다시 알려줍니다.





### 확장된 경험은 모바일을 넘어 일상까지

차세대 인터페이스 Bixby를 통해 확장된 경험은 비단 모바일 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갤럭시 S8은 Samsung DeX를 통해 PC와 유사한 사용 경험을 제공하고, Samsung Connect\*를 통해 2017년 출시되는 삼성 가전제품, SmartThings IoT 디바이스 등을 쉽게 연결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실제 생활까지 확장된 모바일 사용 경험을 일관되게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Samsung Connect는 일부 국가에 한하여 지원함



 ${\sf design.samsung.com} \quad \Rightarrow \quad$ 

samsung.com/sec